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배포일자	2022년 10월 16일(일) 총 3매	
담당 부서	비상대책과	담당자	• 비상대책팀장 권경호 ☎440-5761 • 담당자 남지현 ☎440-576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 서해 5도 특별행정구역 격상·주민 지원 확대 강조**  
**- 16일 연평도 찾아 북한 포 사격 도발에 따른 위기상황 점검과 주민의견 수렴 -**  
**- 특별행정구역 관리,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등 서해5도 지원 확대 적극 추진 -**

유정복 시장이 북한의 포 사격으로 긴장감이 감도는 연평도를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서해5도 지역에 대한 특별행정체제 관리 및 주민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인천광역시는 10월 16일 유정복 시장이 허식 시의회 의장, 배준영 국회의원, 문경복 용진군수, 이의명 용진군의회 의장과 용진군의회 의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서해 최북단 도서 중 한 곳인 연평도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4일 오후 5시쯤 북한의 포 사격으로 인한 포탄이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의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져 주민 불안과 위기상황이 고조되고 있음에 따라 현장 점검과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소연평도와 대연평도를 차례로 방문해 주민대피소 및 경보시설을 찾아 가동 상태 등을 점검한 후, 관할 군부대 장병을 격려하면서 북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유 시장은 “이번 포 사격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로 서해 5도를 수호하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심히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9·19 군사합의를 엄정히 준수할 것과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서해 5도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유 시장은 “서해 5도 거주 주민들에게는 현재 수준에서 대폭 확대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인천시는 서해 5도를 ‘특별행정구역’으로 격상시키고 특단의 행정·재정·안보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정부와 함께 이에 맞는 행정체제로 만들어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 지원금을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2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백령공항 건설 가속화,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등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교통 편익에도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정복 시장은 관계 부서에 대해 사전 점검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지시했다.

유 시장은 “접경지역인 인천시는 남북의 대치 국면과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있을 때마다 불안과 우려가 큰 지역이며, 특히,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생생한 안보 현장인 만큼 이를 교훈 삼아 철저한 사전 점검과 대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대피시설과 경보시설 등 시설물과 비상시스템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라” 고 지시하는 한편, “인천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통합 방위태세를 철저히 확립할 것인 만큼 군(軍)에서도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8월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북한의 도발을 가정해 주민 대피와 출도, 출도 후의 이송방안 등을 포함해 연습을 진행한 바 있다.

※ 관련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